

“전주시 공직자 5계명 반드시 지켜라”

김승수 시장, ‘존중·협치·현장·학습·화합’ 강조... ‘사람 중심 업무 추진’ 가장 중요

“공직자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일 전주시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업무 5계명’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원위생과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존중과 협치, 현장, 학습, 화합 등 다섯 가지 계명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제시한 5계명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사람 중심의 업무 추진.

김 시장은 “일상적인 단속 업무조차도 법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게 우선인 것”,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항상 행정의 중심은 사람임을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다음마당으로 대표되는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시장은 “다음마당의 정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치를 적극 실천하고,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협치는 정책 결정의 마지막 과정이 아닌 정책결정의 처음부터 중간 단계의 과정이므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이 업어줄게 2일 오전 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 후 선배 재학생들이 신입생을 업고 교실로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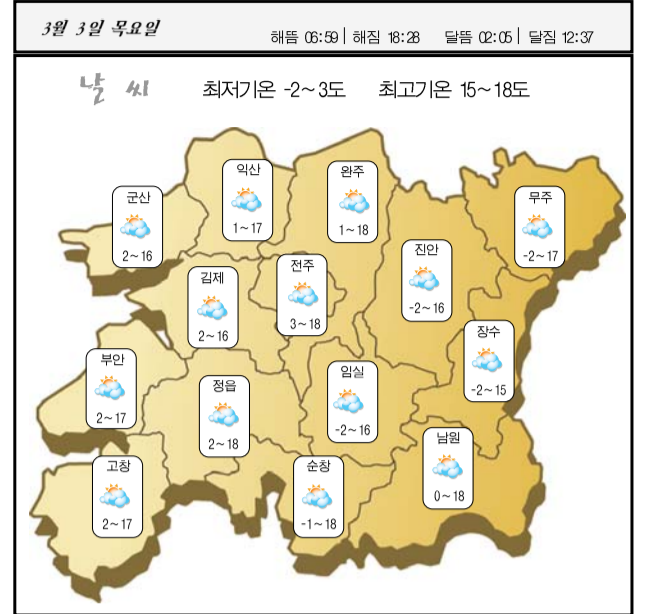
또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고, 결정된 정책은 바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공무원이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로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다녀오지 않은 보고는

죽은 보고다. 담당자의 현장 방문 여부도 시정이 현장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예산은 필요가 없다. 모든 업무추진시 현장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시장은 이날 업무 5계명으로 업무담당자가 학습을 통해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업무 멘토를 통해 이론적인 지지가반을 마련하는 ‘학습’과 동료와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신청접수

전주시, 11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동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2016년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는 총 9개 마을을 선정해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마을당 연간 40일까지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대표이며,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

어지지 않은 마을과 농촌지역 외 마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동급식 기반을 갖춘 마을의 사업 신청 결과를 토대로 급식 참여인원과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비용, 마을 영농 규모 및 급식 장소 적정성 등 평가표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이달 중순경 9개 농촌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공동 취사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대표이며,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

/김영재 기자

전주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 21편 발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중 하나인 ‘한국단편경쟁’의 본선 진출작이 발표됐다.

2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21편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한국단편경쟁 부문에는 총 661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극영화 15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2편, 다큐멘터리 1편이다.

‘플라이’ ‘동물원’ ‘어른이 되기 전에’ 등 21편의 작품들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선보이며 대상·감독상·심사위원특별상 3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한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27명 채용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27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

2일 도 교육청은 127명을 선발하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총 127명으로 교육행정직 70명·사서직 7명·시설직(건축) 13명·공업직 6명·식품위생 5명·운전직 25명 등이다.

원서는 다음달 18일부터 닷새간 전북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6월 18일과 7월 28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박용주 기자

전북 전교조 전임자 3명 해직될 듯

도교육청, 교육부 지시 수용 입장... 다른 지침은 이행 않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역 전임자 3명이 해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의 노조 관할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것이 된다”면서 “이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만큼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

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파기 및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한 뒤 이달 18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전북지역 전임자 중 ‘복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3명이 오는 1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직권면직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 사무실 지원 등 다른 교육부의 지침은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가 있으면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방과후학교 등을 수강하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생에게 60만원 가량의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층 학생이 교과 및 특기 적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수강할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가량의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이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를 통해 지원된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도서구입비, 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지만, 일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안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이거나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 150% 범위)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용주 기자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납골함, 한지벽지, 장판, 수제한지탁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담지, 예견지, 응용한지인간한지, 대례지, 한회지, 순수운용지, 이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보말떡,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천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전주시 <http://www.jeonju.go.kr>